

오륙도 칼럼



윤현식

불교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것이
라 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언제 어디서
나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
처님께서 처음 설하시고 모두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는 달리
비밀이 없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 불리는
것은 존재의 모든 모습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찾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바깥의 모습을
관찰하기보다 내 안의 마음을 관찰
하는 것이 찾기에 용이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신 혼자만이 알고,
제자들에게 비밀리 한 것은 단 하
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른바
스승의 권위를 드러내는 비전(秘
傳) 같은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습
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 받는 부
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열린 법, 그
대로입니다.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라는
것은 현세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라고 하
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유익해
야합니다.

죽은 다음을 이야기 하고 죽은
다음의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이익과
행복을 주는 진리라고 선언하셨습
니다.

또한 이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육
신으로 머물던 시간이나 육신이 사
라진 오늘도 시간에도 그 가르침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부처님 진리는 행복과 이
익을 주는 가르침으로 존재합니다.

부처님 법은 "지금(Now), 이곳
(Here)"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와 내
일을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
며 저 멀리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
니라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진리를 찾아 한참을
돌아서 와보니 파랑새는 집에서 지
저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
처님 가르침은 '와서 보라'는 가르
침입니다.

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보
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비밀이
없고 공개된 진리이니 누구나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
한 방법이나 특별한 경우를 요구하
지 않습니다. 지위도 재산도, 성별
도, 나이도 건강도 귀하고 천함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해

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와서 보면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평
범하고 순수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볼 것인
가? 우선 자신의 기준 즉, 현재 인
식을 포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포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틀릴 리가 없다는 것
을 포기해 보는 것입니다. 스티일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경험과 인식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
다. 이것을 일어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는 것이라고 선사들은 이야
기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 난
감하실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효
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포기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는 전제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
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효도가 무엇
인지, 성실함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만 가능한 일하기에 현재의 자기
인식 속에 이렇게 하는 게 효도,
저렇게 하는 것이 성실히 사는 것
이란 자기경험적 인식을 포기해 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아지를 위한다며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는 꼴이며,
말(馬)을 위한다며 서서 자는 말을
억지로 눕히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진리의 길에 들어
섰다면 공부의 반을 마친 거나 다
름없다 하셨습니다.

녹음이 짙어갈 때에 '산은 산
이 아니다', '푸른 하늘은 푸르지
않기 때문에 푸르다고 이름한다'는
화두를 하나씩 마음에 새기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불하시길 염원하며 황령산 성
암사 법당에서 함 사합니다.
황령산 성암사 주지



<172>



서 푸른 가로등을 설치하였다고 한
다. 우리 남구도 속히 푸른 가로등
을 도입하여 남구 야경도 아름답게
하고 범죄율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박대곤(대연동)



선형의

1000자 지혜 72

노인과 원숭이

촌설살인(寸舌殺人)이 난무한
때이다. 이는 짧은 혀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인데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으레 있는 일이다.

다른 후보를 죽여 자기가 승
리한다는 타살자생(他殺自生)적
고는 이번 6·2지방선거는 좀 심
각한 것 같다.

하기야 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도구 의원까지 함께 뽀으니
투표지만 해도 여덟 장이나 되어
가면 누구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스운
일은 후보자들끼리는 필생을 위
해 야단법석이지만 유권자는 그
놀음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 그들의 술책에 많
이도 속아왔기 때문이다.

목리자(郞子)는 "이 세상에
는 술책으로 국민들을 부리면서
무도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는
데 그들이야말로 원숭이를 기르
는 노인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어리석기 마땅인지 깨우치면 그
술책도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했다.

목리자의 시대만 하더라도 백
성들이 어리석었지만 지금은 그
렇지 않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내일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초(楚)나라에 생업으로 원숭이
를 기르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날이 밝으면 원숭이들을 모두 불

러 모아 그 중에 대장 원숭이에
게 말했다.

"부하들을 인솔하여 산으로 가
서 열매를 따오너라. 그리고 그
가운데 십분의 일을 나에게 바쳐
야 한다."

원숭이들은 노인이 무서워 시
키는 대로 했는데 어쩌다 수량이
모자랄 때는 호된 벌을 받았다.
하루는 새끼 원숭이가 산에 있
는 나무는 노인이 심은 거냐고
물어 저절로 자란 것이라고 말했
더니, 열매는 노인만 가질 수 있
느냐고 다시 물었다.

"아니야. 누구나 가서 딸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그럼 왜 우리가 노인에게 매
달려 살며 무엇 때문에 그를 위
해 일하지?"

새끼 원숭이의 말에 다른 원숭
이들은 깨닫은 바가 있어 노인이
잡든 틈에 우리를 부수고 모아둔
열매를 모두 갖고 숲속으로 도망
을 쳤다. 그리하여 노인은 마침
내 굶어죽고 말았다.

위정자나 단체의 장은 정도(正
道)와 사랑으로 단체를 이끌어야
지 무도한 술책으로 다스린다면
언제인가 원숭이를 기르는 노인
같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참나 사람을 뽑
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
람을 뽑는 것이다.

변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요의 시청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자원재활용 교육을

우리 동네에 고물상이 생기면서
오가는 길에 안을 들여다보다가, 현
웃을 정리해서 가져가 팔기도 했다.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
는데, 세상에 버리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이었다. 플라스틱, 현 장판, 현
웃, 현 가방, 현 신발, 모자, 전자
제품의 전기코드, 전선줄... 하야간
공장에서 생산된 것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거의 분리수집 되었고 폐

신문, 현 상자는 물론이고 컴퓨터용
지, 슬가락, 밥그릇, 어느 것 하나
도 안 모으는 게 없었다. 우리가정
에서 사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제
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버리지는 게
얼마나 많은가?

패트 병, 스티로폼, 비닐봉투, 평
생가도 써지도 않은 것들을 마구 내
버리고 나뉘구느낌 보면, 아직 우리
가 분리수거에 하술한 것도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초등학교생들을 데리고, 견학차원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분뇨수거 체계 선진화 노력

분뇨수거량을 숫자로 표시하자고
제안하신 우암동 박영준님의 의견
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 요금은 "부산관
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정 기준과 단위가
정해져 있으며, 정화조 차량의 눈금
도 이 기준에 따라 표시되어져 있습
니다. 난방유 차량처럼 주유를 투입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오물을 수거
하는 체계이므로 아리바나 자자로
눈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전환은 앞으로 개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화조 용량과 가격을 청소
이행 통지서에 표시할 경우 실제 용

량과 관계없이 표시된 용량대로 요
금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
여 시설용량을 표기하지 않고 있으
니, 현재 이행통지서 뒷면 및 차량
에 표시된 수수로 산정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정화조 청소 수거
전후의 눈금 확인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져 불편
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이종도)

불법광고물 근절위해 단속

도로변과 골목길 주막가 담과 벽
에 마구잡이식으로 붙여있는 불법광
고물 부착 행위를 근절하자고 건의

하신 문현3동 우왕하씨의 의견에 답
변드립니다.

보행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주라는 매일,
아간은 매일 1~2회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 인원과
영업주의 의식 변화가 없는 한 모든
불법광고물의 근절이 힘든 점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근원적인 부착
방지를 위해 벽보부착 방지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고질
적이고 선정적인 유동광고물에 대하
여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불법
광고물의 부착 및 배포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 갈 것
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강태남)

의료급여제도 안내

■장애인보장구 지원

- **신청 대상** : 등록장애인증 의
료급여수급권자
- **구비서류**
－보장구급여신청서 :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차량전
－급여비용 지급승인서 : 겸
수확인서, 영수증 등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의
부정청한 진료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보장
기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보장 기관
이나 건강보험공단,심사평
가원에 신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기간** : 5. 1. ~ 6. 30. (2개월)
- **중점 추진사항**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
호관 영치활동 강화(야간영
치 병행)
－채권실의 있는 압류재산(부
동산, 차량) 강제처분

■나의 생각

유공자 애국애족정신 되새겨야



조덕제

해마다 돌아오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유공자들
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있으
나 그분들의 가슴에는 미치지 못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조국산하의 이름모를 고지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로
지 국군의 일원으로 그 고귀한 생
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송고한 정
신으로 생명을 불사른 채 나라를
구하고 우리들을 구하고 유령을
달리한 그분들과 전쟁이 끝난 지
금까지 50년이 훨씬 지난 세월 동
안 병상에 누워 무공훈장을 이루
만지지 조국사랑과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병고를 달래는 그분들
에게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과 감
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경의를 드려야 할 것 같다.

조국 없는 사람은 고향이 없는
유랑민처럼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자손대대로 살아야할 내 조국
강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순
정과 정열 그리고 때 묻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체면이나 형식만 있어도 안 될
것이며 구호나 행사만으로도 안
된다.

오직 그분들에게는 진실 그 자

체뿐만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이며
자로 짖 수도 없는 자기 스스로 사
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도자가 먼저 일하고 먼저 희생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이끌고 나아가야하며 국
고의 노력과 탐과 눈물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
다. 우리민족에 있어서 지금까지
최대의 수난기간 일제 침략 하에
도 우리의 선열들이 목숨과 국고
의 투쟁으로 자주독립을 찾았고
6·25의 종족참상 등 위기 때마다
우리의 선열들은 나라만을 위해
송고한 생명을 불사르듯이 다시
는 가슴을 짓눌리지 않게끔 평화
적 통일을 염원하며 가슴 아픈
역사 속에 교훈을 얻어 그 회생
을 기리고 민족정신으로 승화시
켜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오늘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의미
이며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오
늘을 사는 우리들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선열의 희생과 노력에 이
제는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무엇
이든 위로할 차례인 것 같다.

우리 이웃에 유공자와 유족들
이 살고 있고 전상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갖고 국가
와 사회가 노력한다면 그 분들의
희생이 더욱더 값질 것이며 녹슨
훈장도 더욱 빛을 더할 것이다.
이제 6·25와 같은 참극이 다시
는 발생 없기를 염원하며 화해하
고 화합하는 바탕위에 민족통일을
우리가 기록해야 할 과제이다.

전 구의원·대연6동

■살며 생각하며

황령산 편백숲 예산



박능숙

황령산 바람고개 언저리의 공기
는 그 맛이 예사롭지 않다. 코로
스며드는 독특한 향기가 상쾌하고
그윽해서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 바
로 지척에 있는 편백 군락지에서
뿜어 나오는 향 때문이다.

비탈진 숲에는 아름답디 편백이
수만 그루나 꽃꽂한 기세로 하늘
을 이고 있다. 한두 해 하늘을 올
려다 본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수
십 년 세월이다.

그 장대한 시간을 하염없이 하
늘을 우러른 일념은 무엇인지, 쪽
쪽 뻗은 나뭇줄에 등을 기대고 눈
길은 우듬지로 향했다.

우듬지 위의 하늘에서는 이름
모를 새소리만 적막을 깨트릴 뿐

우둔한 자의 눈과 귀에는 아무것
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조차 없
었다.

편백 숲 가운데로 난 한적한 오
솔길을 걷다보면 숲과 내가 하나
가 된다. 쾌적하고 안락해서 저절
로 가벼운 발걸음이 된다.

숲에는 그 흔한 잡초나 곤충도 찾
아볼 수 없다. 오로지 나무동치의
적갈색 등걸 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
찌 보면 황폐하다 할 수 있겠다. 하
지만 편백 숲에서 쉬어 본 사람들은
안다. 상쾌하고 편안해서 쉽게 일
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숲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자
기만의 오묘하고 섬세한 비밀병기
를 가지고 있다. 그 비밀병기가
피톤치드다. 피톤치드는 식물들이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려고 내뿜는 휘발성 향균 물질
이다.

말하자면 식물이 자기방어 수단
으로 향을 내보내는 것이다. 피톤
치드는 사람에게는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심폐기능을 강화시
킨다.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
정되는 것도 나무가 토해내는 향,

피톤치드 때문이다. 심신이 안
정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
도 증가하게 된다.

피톤치드는 우리 몸을 쾌적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
능을 가지고 있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지면서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삼림욕이란 이 피톤치드를 마시
는 것이다. 피톤치드를 내뿜어 자
신을 지키고 숲에 찾아드는 인간
도 이렇게 하는 현명한 숲. 그대
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숲
에 가면 우리는 편안하고 쾌적함
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편백 그늘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색을 즐기기도 한다. 두서너트
모며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하는 이도 더러
보인다.

숲 바깥에서야 사는 일에 안달
하며 바쁘게 살아왔을 테지만 숲
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참으로 평화로운 휴식이자 마음
치유의 공간이다. 나도 편백 품에
안겨 향기의 일부가 된다. 편백
숲에 아주머니 몇몇이 보물찾기
하듯 숲을 뒤지고 있다. 편백 씨
앗을 줍고 있단다. 콩알만 한 편
백 씨앗이 앙증맞다. 씨앗을 소금
물에 찌거나 삶아 말려서 베개를
만단다고 한다. 편백 씨앗 베개는

실제로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와
집 먼지 진드기에 대한 기피효과
가 있다.

편백 씨앗으로 만든 베개는 장
쾌한 편백 숲에 누운 것처럼 향긋
해서 안락한 잠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삼림욕도 일광욕이나 해수
욕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
서는 안 될 건강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참삼이가 하두로 때오른 요즘
편백 삼림욕장이 황령산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
리 남구의 큰 자랑거리이다.

황령산의 가을막을 완만하게 하
거나 편백 숲 속에 나무 평상이라
도 좀 더 늘리란면 어떨까.
그렇다면 도심 속의 황령산은
가족이나 이웃들의 훌륭한 쉼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도심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
거로 시끌벅적하다. 벽보나 플래카
드, 홍보물마다 떼지고 인자한 모
습으로 한 표 호소하고 있다.

자신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들과
여러 가지 공약으로 홍보전을 펼
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편백을 떠올린다.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찍든
그건 유권자의 몫이다. 편백 같
은, 편백 숲 같은 사람이냐 정당
이 있는지를 눈 크게 뜨고 찾아
야한다. 수필가·문현3동